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19. 6. 3(월) 총 5매(본문3)	
<b>담당 부서</b>	건축문화 경관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이경석, 사무관 복상규, 주무관 차동욱 • ☎ (044) 201-3779, 3781
<b>보 도 일 시</b>		2019년 6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3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민간 건축가 참여로 [생활SOC 등]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 광주·파주·진주 등 8곳 공공건축물에 총괄·민간건축가 위촉키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·도시·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‘총괄·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’을 본격 추진한다.
  - \*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
- 본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’의 후속 조치이며, 공모 결과 약 3:1(기초지자체의 경우)의 경쟁을 거쳐 기초 지자체 5개소(경기 파주시, 강원 춘천·원주시, 충남 당진시, 경남 진주시)와 광역지자체 3개소(광주광역시, 충청남도, 경상남도)가 최종 선정\*되었다.
-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6월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·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(설계, 시공 등)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되며,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·도시·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.
  - 특히,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자문에 그쳤던 과거의 민간전문가 활용과는 다르다.

- 아울러, 이번 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위촉되는 **총괄건축가**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**효과적으로 연계**하여 총괄·조정하는 계획(이하 『공간환경 전략계획』)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.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**생활SOC** 등 공공건축물들이 **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**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는 그간 지자체의 각 담당부서가 **건축·도시·경관**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**사업 간 연계가 부족**했고, **품질이 아닌 가격**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등 **사업기획과 추진절차에서 전문성이** 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.
- 참고로, **민간전문가 제도**는 19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프랑스, 독일 등에서는 이미 **보편화**되었으며, 우리나라도 **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** 서울시, 부산시,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되면서 **가시적 성과를 거두고**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- \* **영주시 사례)** 2009년 공공건축가, 2010년 **총괄건축가**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용중 (현재 제3대 총괄건축가 신승수, 공공건축가 3명)
  - 역사문화거리, 삼각지, **舊역세권**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, 거점공간별 노후시설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하며 지난 10년간 도시공간 품격향상에 기여



**청소년 비보잉 연습장**  
버려지고 노후화된 의회  
창고건물을 리모델링  
(역사문화거리)



**노인복지관**  
철도로 고립된 공간을  
커뮤니티 공간으로 신축  
(삼각지)



**후생시장**  
쇠퇴된 근대상업가로를  
지역명물로 도시재생  
(舊역세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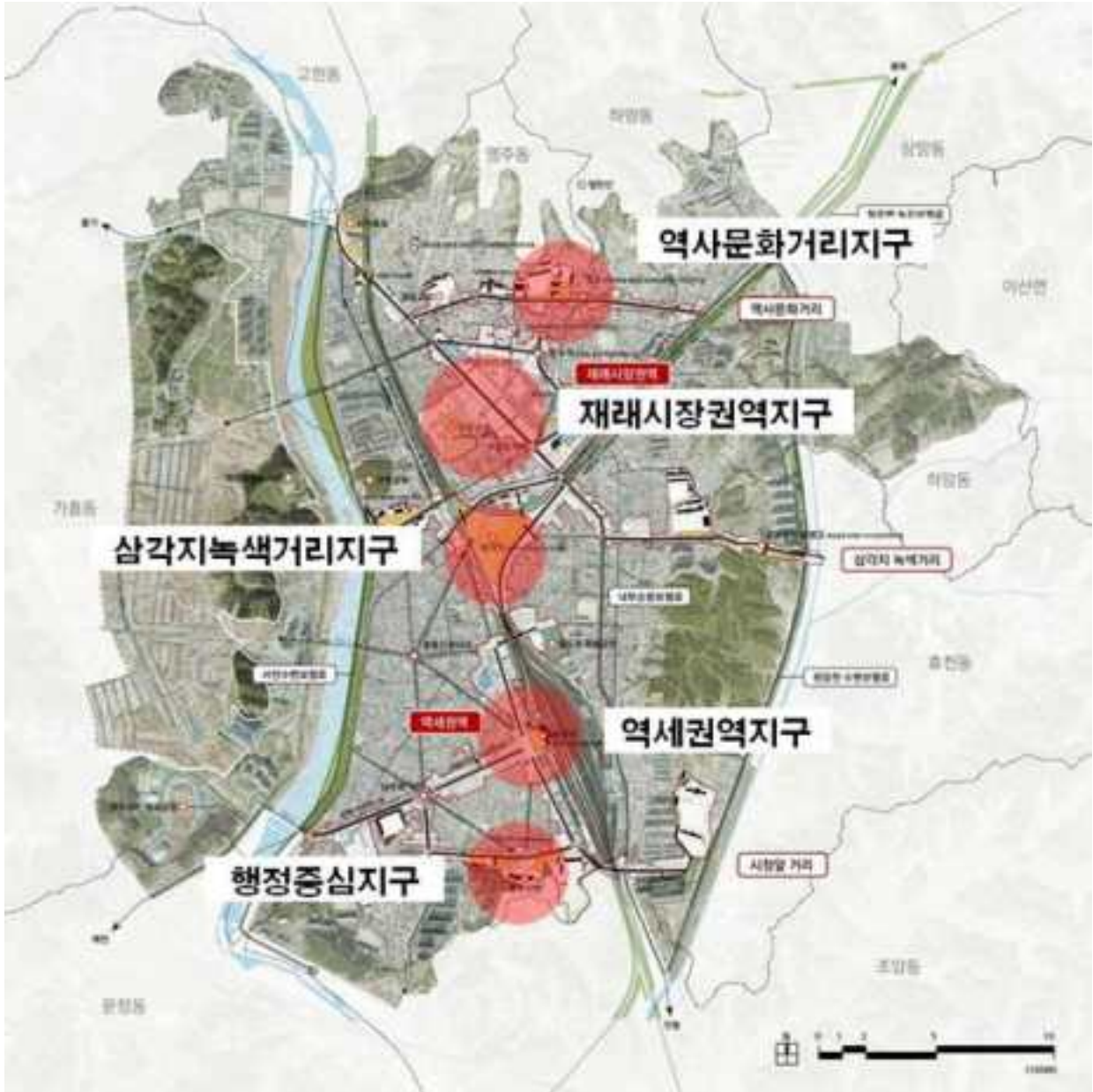
- \* **서울시 사례)** 2012년 공공건축가, 2014년 **총괄건축가**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(현재 제3대 총괄건축가 김승희, 공공건축가 173명)

-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“지역의 공공건축물은 국민들에게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귀중한 자원이 되는 만큼, 이들의 품질과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괄·공공건축가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복상규 사무관(☎ 044-201-37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례(경상북도 영주시)



☞ 경북 영주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 (5개의 주요 거점지역 설정)·추진하여 가시적 효과를 도출한 대표적인 선도 사례지역이다

※ 공간환경전략계획이란, 개별 공공사업을 장소 단위(주요 거점지역 설정)로 통합·조정하는 계획으로 용도·구획지정 등 위주의 평면적인 도시기본계획과 점적인 개별 공공건축(공간) 사업의 간극을 매우는 통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.



□ 역사문화거리지구 개선사례



[기존 가로경관 모습]



[개선사업 후 변화된 가로경관 모습]

☞ 담장허물기, 보행공간 확장 등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



[이전이 확정된 구 공공청사 전경]



[문화시설 건립 후 변경된 주변 가로경관의 모습]

☞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따라 이전이 확정된 공공청사 등을 주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



[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공공건축물 전경]



[리모델링 후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재탄생]

☞ 방치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활동(비보잉 연습장)공간으로 재탄생